

【이케야마 나오 선수에게 히토미 키누에 스포츠 표창을 증정】

안녕하세요.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.

여러분은 오카야마시의 직원으로 올해 5월에 국내 최연장자(45세)로 세계 복싱기구(WBO) 아톰급 초대왕좌이며, 메일 매거진에도 등장한 이케야마 나오 선수를 기억하십니까?

그 이케야마 선수가 9월의 첫 방어전에서 승리하여 훌륭하게 타이틀 방어를 완수했습니다. 이것도 남녀를 통틀어 국내 최연장자의 쾌거라 오카야마시에서는 이 역사적 위업을 기리려고 히토미 키누에 스포츠 표창의 시민 스포츠 영예상을 수여하기로 하고 어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.

이 상의 수상은 오카야마 미나미고등학교 출신으로 프로 야구의 희생타의 세계 기록을 수립한 전 자이언츠야구팀의 가와이 마사히로 씨에 이어 두 번째. 시장실에는 시청의 상사·동료는 물론이고 시의회의 여러분 등 발 들여 놓을 데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여 모두 이케야마 선수를 축하했습니다.

평소 그녀는 차분하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공격 타입의 복싱선수로 링 위의 있는 모습은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. 아마도 응축된 에너지가 링에 오르면 단숨에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2번, 3번, 계속해서 방어를 쌓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.

또한, 이케야마씨는 업무 면에서의 평판도 좋습니다. 계속해서 복지

업무도 잘 부탁드립니다.

※ 히토미 키누에 스포츠 표창

오카야마시 출신으로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 육상 여자 800m 달리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일본인 여자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된 히토미 키누에의 공적을 기리고자, 매년 국제 대회나 전국 체전 등 전국 대회 또는 장애인 스포츠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오카야마시에 관련된 선수, 단체, 지도자를 표창하는 것.

시민 스포츠 영예상은 그중에서도 특히 역사적인 위업을 달성한 선수에 수여된다.